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4호 2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4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제 4 호 (242)
1964년 2월 (하)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 대하여

박 웅 걸

오늘 우리 문학 예술 부문 일'군들 앞에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여야 할 과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선 1930 년대 항일 투사들을 들게 된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15여 성상이나 계급적 원쑤를 반대하여 목숨 바쳐 싸워 이긴 불요불굴의 투사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성과 고상한 사상을 지닌 인간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인간 개조 사업에서 혁명 전통 교양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의는 자못 큰 것이다.

오늘의 천리마 기수들은 누구나 다 항일 유격대원들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 업적과 투쟁 경험, 사상 체계와 혁명 정신, 군중 관점과 사업 작풍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 예술 부문 사업에서 항일 투사들—공산주의자의 전형을 더욱 훌륭히 창조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산주의 교양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 근로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신적 량식을 주며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에 보다 큰 고무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위대한 천리마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특히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대사변을 앞두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당의 수중에 장악된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인 문학 예술은 자기의 형상 수단을 통하여 인민 대중을 더욱 높은 계급적 각성과 보다 철저한 혁명 의식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즉 인민 대중들로 하여금 항일 투사들처럼 살며, 싸우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그 고결한 지조를 본받게 하고 조선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각오와 투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하여야 한다.

특히 외제를 배격하고 자주적 힘으로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궐기한 남반부 인민들에게 감옥도, 원쑤의 총탄도 두려워 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고 투쟁할 수 있도록 혁명의 씨앗을 뿌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은 또한 오늘의 천리마 현실 자체가 절실하게 제기하는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1958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력사적 환경에서 인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산주의 교양이 일정에 제기되였다. 이 시기 혁명 전통 교양은 근로자들의 의식과 도덕 생활에서 거대한 전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천리마 운동에는 더욱 박차가 가해졌으며 그것은 천리마 대고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천리마 운동이 낳은 우리 시대의 전형인 천리마 기수들은 항일 투사들처럼 살며 일하며 배우는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들이다.

천리마 운동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인간 개조 사업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였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대렬이 확대되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천리마 기수들의 사상 정신 세계는 비상히 높아졌다. 그들은 혁명 전통 교양이 가지는 커다란 힘을 자각하게 되였고 아울러 그에 대한 더욱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게 되였다. 이것은 항일 투사들의 사상 정신적 풍모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무장할 것을 지향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공산주의 수양을 위하여 제기되는 합법칙적 요구이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인민 대중의 보다 높은 요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는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으로 우리 세대의 인민을 교양하는 사업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계속하여야》(《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91 페지) 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보답하여 우리 문학 예술은 지난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장편 소설 《서광》을 비롯하여 서사시 《백두산》, 《밀림의 력사》 그리고 무대 예술 부문에서는 《밝은 태양 아래》, 《밀림아 이야기하라》, 《해바라기》(1, 2 부), 《조국 산천에 안개 개인다》, 《붉은 기'발》 등이 창작되였다. 영화 부문에서도 기록 영화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 전적지》, 예술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 《애국자》 등 성과적인 작품들이 나왔다.

이러한 작품들이 거의 모두가 1959년 이후 시기에 창작되여 나왔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문학 예술이 혁명 전통 교양에 대한 인민 대중의 절실한 요구에 일정한 대답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작품들은 일관하여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이 가지는 혁명적 의의를 예술적으로 밝혀 내였으며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 바쳐졌다.

문학 예술 작품들에 창조된 주인공들인 성호, 철호, 철이, 순실, 성룡, 병훈, 길산, 사남 등의 형상은 그들의 공산주의적 높은 정신 세계와 아름다운 도덕적 풍모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수많은 독자와 관중들에게 커다란 영향

을 주고 있으며 우리 당의 인간 개조 사업과 공산주의 교양에 훌륭히 복무하고 있다.

지난 시기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특히 무대 예술 부문이 거둔 성과가 컸다. 그것은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4 편의 무대 예술 작품이 인민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음악 무용 서사시 《밝은 태양 아래》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오늘의 천리마 시대를 그것이 뿌리 박고 있는 혁명 전통과 구체적으로 결부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사회주의 건설의 선두에 서 있는 공산주의 투사의 생동한 형상을 그려 내였다.

그러나 이상의 성과로써는 만족할 수 없다. 인민들의 미학적 수준이 날마다 높아 가고 있으며 그 만큼 문학 예술에 대한 요구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본격적인 대작을 내놓아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 광복의 길을 열었다. 이 과정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되여야 할 위대한 영웅 서사시적 사변들로 충만된 시기였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응당 이러한 력사적 사실을 폭 넓은 영웅 서사시적 거편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이 시기에 첨예하게 진행된 투쟁의 본질과 혁명적인 시대상을 뚜렷이 밝히며 투사들의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드러 낸 대작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당의 기대이며 현실의 요구이다.

이러한 당과 인민의 기대와 요구에 보답하여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에서 오늘의 시대 뿐만 아니라 먼 후대들에게도 영원히 전하여질 불후의 명작을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당적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더 없는 보람이며 영예로 될 것이다.

그러면 문학 예술 분야에서 혁명 전통의 사상을 반영하며 더욱 높은 수준에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 예술이 자기의 창작 방법 상 지켜야 할 원칙의 하나인 전형적인 환경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즉 혁명 투사들의 형상을 당시의 구체적이며 본질적인 력사적 사실에 립각하여 그 속에서 살며 투쟁한 그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심오하게 반영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성격을 전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작가가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이나 인물들에 포로되여 사실 그 대로 기록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여 전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인공의 성격을 전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생활하는 정황을 전형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작품에 전형적인 환경을 제시하기 위하여서는 당대의 시대상과 계급적 제 관계가 가장 뚜렷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정황과 사건을 취사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거기서 행동하는 주인공의 성격도 또한 전형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벌써 1946년 3월에 우리 작가들에게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일부 작가들이 쓴 보천보 전투기를 례로 들면서 이 작품들의 중요한 결함은 력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전투 정형을 잘 묘사하였으나 그 전투를 군사적으로만 평가한 데 있다고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보천보 전투가 조선 인민에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희망과 신심을 안겨 준 구국의 홰'불로 된 그 력사적 의의를 밝히지 못한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 교시는 문학 예술 작품에서의 환경 묘사는 정황이나 사건의 단순한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과 생활의 본질, 계급 투쟁의 의의가 밝혀질 때만이 전형적인 것으로 된다는 진리를 해명해 준 것으로 된다.

문학 예술 작품에 묘사된 환경이 전형적인 것으로 되지 못할 때 주인공의 성격도 또한 전형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원칙은 전형적인 환경을 제시한다는 것이 결국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해 내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혁명 투사들의 형상은 1930 년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과 성격을 대변하게끔 훌륭하여야 하며 그를 통하여 당대의 가장 본질적인 사변들과 문제들을 알 수 있게끔 창조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실하고 생동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창작 실천을 통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소재에 사로잡히거나 원형에만 매여 달릴 때 왕왕 기록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학 예술인들이 만약 원형의 자서전(그것도 작가가 알고 있는 자료의 한도내)에만 매여 달려 그것을 기록하는 데 그친다면 주인공의 성격을 폭 넓고 심오하게 그려 내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재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원형에 대한 작가의 지식에는 제한이 있다) 작품을 통하여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명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원형에까지 본의 아닌 페를 끼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주인공의 성격 창조에서 개성을 선명하게 살리면서도 그것이 인식 교양적-사회적 의의를 가지도록 일반화하여야 한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리치를 잊어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일반화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1930 년대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개별적인 사건들과 소재들을 라렬하며 항일 투사들의 성격들을 심오하게 파고 들어 그려 내지 못하는 기록주의적 현상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자의 전형이 폭 넓고 깊이 있는 일반화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작가가 많은

사건들과 투사들의 다양한 성격들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의의 있는 것을 추려 내여 형상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 문학 예술 창작 분야에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부 작가, 예술인들이 아직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이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와 당시의 혁명적 사변들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으며 항일 투사들이 지닌 정신 세계와 도덕적 높이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문학 예술 작품에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의 사상 의식 수준과 창조적인 열정, 예술적인 기량이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 자신이 공산주의적인 높은 정신 세계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할 수 없다.

따라서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에서 발로되는 이러한 부분적인 경향은 창작가들의 능력이 미약한 데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는 자신들의 당적 수양의 부족과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기 위한 정열적인 탐구 정신, 진지한 창작 태도가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작가, 예술인들 가운데에는 혁명 투사들의 략력이나 얻어 듣고 작품을 창작하려고 조급하게 붓을 드는 사실들이 적지 않다. 이것은 혁명 투사들에 대한 모욕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자들과 관중들에 대한 죄악으로 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그릇된 현상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있었던 풍부하고 감동적인 소재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진지한 태도로써 혁명 전통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당과 인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공산주의 혁명 투사의 전형을 훌륭하게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창작가들의 실무 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소재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성격을 전형화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자료 자체가 작품이 아닌 것처럼 원형 자체가 곧 전형으로 될 수는 없다.

문학 예술 작품에서 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그 소재가 창작가들에 의하여 평가되고 가공되여야 한다. 이러한 형상 작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창작 일'군들의 사상 예술적 기량 정도에 따라 그 성과 여부가 결정된다. 제 아무리 훌륭한 원형, 좋은 소재를 취급한다고 하여도 창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기량이 똑바르지 못 하거나 미약할 때 전형적 성격을 창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창작 기량을 더욱 높이여 자신을 사상 예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원형과 소재의 세계에 보다 깊이 침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성 있는 예술적 허구와 창조적인 환상을 자유롭게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작가, 예술인들이 혁명 전통의 주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력사적 사건만을 앞에 내세우고 진정 보여 주어야 할 공산주의자의 성격은 안겨 오지 않게 하는 폐단도 없앨 수 있다.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자 특히 1930 년대 항일 투사들의 정신 세계가 그 만큼 높으며 그들의 생활과 투쟁이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문학 예술 창조 일'군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당적인 의무이며 영예로운 사명이다.

우리는 한 혁명 투사의 투쟁 과정을 잘 반영하여 훌륭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다면 인민 대중이 그것을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과 계급적 제 관계를 알게 될 것이며 동시에 《혁명 력사의 한 폐지》를 펼쳐 보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재삼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항일 혁명 투사의 성격과 내면 세계를 폭 넓고 깊이 있게 그려 내는 그것이다.

문학 예술 작품은 주인공의 생동한 성격을 통해서만 심오한 주제와 사상을 밝혀 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에 창작된 일부 혁명 전통 주제의 작품들에서는 흔히 일면적이고 국부적인 생활 소재에 매여 달리면서 감동적인 사건을 엮는 데만 급급하던 나머지 당해 시대와 생활의 본질을 체현한 진실한 성격과 그의 높은 정신 세계를 심도 있게 보여 주지 못 하였다.

생활 소재가 좋고 작품의 주제가 명백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항일 영웅들의 성격적 바탕에 깔려 있는 고상한 정신 세계를 시대적 높이에서 심오하게 밝혀 내지 못 한다면 여기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러저러한 사건의 줄거리와 개념적인 결론만 남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혁명 투사의 성격을 용감성이나 대담성,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의 발현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것은 응당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높고 폭 넓은 세계관, 풍부한 감정과 아름다운 리상을 지닌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1930 년대 공산주의자들은 부정의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용서할 줄 모르는 강철 같은 투사들이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국 땅의 한 줌의 흙과 한 떨기의 꽃을 두고, 뭇새의 우짖음과 흐르는 시내'물의 조약돌을 두고도 고향을 그리워 하고 민족의 운명을 생각한 절세의 애국자들이였다.

그들이 바로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간으로, 우리의 구감으로 된 것은 바로 이 조국에 대한 절절한 애국심과 계급의 해방을 위한 백절불굴의 투지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였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들과 같이 과거 사회에서 가장 혹독한 착취와 압박을 받아 온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였다. 바로 이러한 사회 계급적 바탕으로부터 그들은 참된 계급의 전사로, 민족적 영웅으로 성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누구보다도 원쑤를 증오하고 혁명 동지들을 더 없이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가장 곤난한 순간에도 오늘의 승리를 믿고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인민의 충복들이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항일 투사들을

다만 군사적 면에서만 시대의 앞장에 선 영웅으로 묘사하는 것은 심히 일면적일 수 밖에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정치 일'군이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가들이였다. 동시에 그들은 간고한 생활과 투쟁의 로정에서 가장 높은 인간 수양을 쌓은 전면적으로 발전한 공산주의자들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김 일성 동지가 령도한 1930 년대의 항일 혁명 투사들을 공산주의적 당성과 인간성, 문화성을 모두 갖춘, 혁명하는 시대의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들의 성격을 광범한 사회 력사적 화폭 속에 다양하고 심오하게 밝혀 내야 한다.

이와 같은 폭 넓고 생동한 성격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 투사의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파고 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 로정에서 투사들이 어떻게 자신을 혁명가로 단련시켰으며 어떠한 행동으로 인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는가 하는 것을 산 전형으로, 생동한 성격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즉 한 혁명 투사의 초상을 통하여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영웅적 투쟁 위업과 정신 도덕적 풍모를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이 훌륭하게 창조된 문학 예술 작품이 독자와 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시대의 일'군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악과 모순을 맑스-레닌주의 서적을 통해서만 리해한 것이 아니다. 감명 깊은 혁명적인 소설을 읽고 주인공들처럼 살며 싸울 것을 다짐하고 혁명의 길에 나선 일'군이 한두 사람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는 이러한 감동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1930 년대 항일 혁명 투쟁이 이룩하여 놓은 무진장한 소재들을 언제든지 임의로 탐구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창작 조건과 형상 수단들이 충분하게 마련되여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우리는 어느 한 혁명 가정을 원형으로 하여 그릴 수도 있고 한 혁명 투사의 투쟁 로정을 원형으로 하여 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원형의 이름이나 한두 자 변경시켜 가지고 년대기식으로 사건만 라렬하는 데 그쳐서는 작가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일반화된 전형으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작품을 통하여 제기하려는 주장과 중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써야 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내면 세계를 가진 공산주의자의 전형,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하고 있는 천리마 기수들에게 고무적 힘으로 되며,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한 남반부 인민들에게 산 교과서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항일 투사들의 성격을 그의 내면 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리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파도치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 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끝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혁명적 랑만성에 대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락관주의는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여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와 용감히 싸운 그 고귀한 정신》(김 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속에 깃들어 있다.

때문에 항일 투사들의 내면 세계에 대한 심오한 사실주의적 묘사를 떠나서는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혁명적 랑만성을 구현할 수 없다.

혁명적 락관주의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은 승리의 신심을 안고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계급의 전사들이였으며 미래를 앞당기는 투사들이였다. 그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국 애족의 사상과 함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으로 된다는 과학적 공산주의로 자신을 무장한 혁명가들이였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야수적인 일제 군경의 고문도, 총칼과 교수대도 결코 그들의 락관주의적인 의지와 혁명적인 리상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념원과 리상은 오늘 우리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활짝 꽃피고 있다. 항일 투사들의 리상을 배웠고 그것을 자기의 리상으로, 사상으로 삼고 있는 오늘의 천리마 기수들은 지금 바로 그들을 혁명의 골간으로 하고 그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산주의의 미래를 똑바로 내다 보며 싸운다.

여기서 스스로 제기되는 문제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그들의 과거의 혁명 투쟁을 오늘의 현실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것이다. 이것은 오늘의 독자와 관중들의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작품의 구성을 짜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적 폭을 넓히며 성격의 계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의 많은 혁명 투사들은 과거에 강도 일본 제국주의와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당의 령도 핵심으로서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하고 있다.

항일 투사들은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를 불문하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전선의 앞머리에 서 있다.

이 투사들의 생활 력사는 혁명적 랑만으로 가득 차 있다.

혁명 투사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긴 세월을 징역살이도 하였으며 두번, 세 번 체포되여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혁명 전우들을 만나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또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그 굽힘 없는 의지로 혁명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항일 혁명 시기에 헤여지게 되였던 어린 아들딸들을 해방 후에야 비로소 만난 투사들도 있다.

간고한 투쟁을 거쳐 오늘의 승리를 쟁취한 그들의 생활은 그대로가 혁명적 랑만의 산 모범이다.

문학 예술 작품에서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된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한다는 것은 특히 싸우는 남반부 청년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항일 투사들의 투쟁 모습을 잘 그린 작품은 남반부 청년들에게 지하 투쟁 방법, 당 조직 방법, 감옥 투쟁 방법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그들에게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온갖 시련들을 두려워 하지 않고 투쟁의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우리의 적지 않은 작품들은 그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과 주인공들의 성격-생활이 매우 협애하다는 것을 지적하게 된다. 그것은 특히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함에 있어서 1930 년대의 간고한 투쟁 자체에만 국한시켜서 주인공을 묘사하려는 경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작품이 내세우고 있는 주제와 사상에 따라서 과거의 항일 무장 투쟁 시기만을 그릴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시의 생활만을 그리는 경우에도 주인공의 성격과 내면 세계를 깊이 있게 파넘으로써 그 속에서 나래치는 혁명적 랑만을 보여 줄 수 있다.

우리는 혁명 전통을 취급하는 문학 예술 작품의 창작에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항일 투사들의 과거만이 아니라 그것과 련속된 현재의 생활과 투쟁에서 모범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혁명가적 수양의 거울로 삼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응당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혁명적 락관주의로 가득 찬 서사시적인 대화폭을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보답하여야 한다.

항일 투사들의 과거의 생활에서 싹이 튼 리상은 오늘의 현실에서 꽃이 피고 그들의 오늘의 생활과 투쟁으로 하여 또한 보다 광명한 공산주의적 래일이 더욱더 빨리 밝아 오고 있다.

바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위업에 의하여 이룩되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대사는 일관하여 혁명적인 랑만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문학 예술 부문의 창작 일'군들은 이것을 반영한 대작들을 내놓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설가들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크다. 훌륭한 소설이 많이 나오면 그에 기초하여 좋은 영화와 연극도 만들 수 있다.

우리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창작을 통하여 혁명 전통의 사상을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반영함으로써 불후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혁명가적 수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만약 항일 투사들이 지닌 그 높은 정신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혁명 전통의 사상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지 못 할 때에는 제 아무리 훌륭한 기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결코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전형을 창조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백두산의 혁명 정신으로 생활하고 창작하며 투쟁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미학관으로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무장하고 천리마의 현실에 깊이 침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예술적 시야를 넓히고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산주의자 전형을 창조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혁명가적 수양의 거울로 되게 하며 생활의 훌륭한 스승으로 되게 하자.

우리 나라에서의 철도 전기화

김 희 일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전 인민적인 지원 하에 철도의 전기화가 전면적으로 급속히 진척되고 있다.

금년에 평의선의 전 구간과 평원선의 기본 구간에서 전기화를 완성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든 철도 운수 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애국적 로력 투쟁에 의하여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의 천여 리 철'길 우에서는 탑주가 새로 일떠서고 전차선이 가설되고 있으며 로동당 시대의 새로운 기적—《철도 전기화 속도》가 창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또 하나의 기념비적 건설인 이 공사의 진행은 철도 운수 부문의 발전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고 앞으로 나라의 철도 전기화를 전반적으로 완성함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하에서 철도 운수는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기본 건설의 대대적인 확장,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철도 운수가 화물 및 려객 수송을 통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생산적 련계를 계획적으로 실현시켜 주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교류를 보장케 하고 나라의 각 지역을 유일한 인민 경제의 유기적 총체로 결합시키는 동맥으로 되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 경제에서 철도 운수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철도는 인민 경제의 동맥과도 같다. 만일 철도가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화물 수송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한다면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방대한 건설 사업도 진행할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선집 제 6 권, 38 페지)

철도 운수가 인민 경제에서 담당 수행하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우리 당은 경제 건설의 매 시기마다 증대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송 수요에 적응하게 철도 운수를 다른 모든 부문에 선행시켜 발전시키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여 왔다. 더우기 우리 당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 서면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철도 운수를 선차적으로 복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특별히 중요한 관심을 돌리여 왔다.

당은 전후 철도의 파괴가 혹심하였던 조건 하에서 계단을 설정하여 순차적인 방법으로 최단 기간 내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며 일제가 철도 운수 부문에

남긴 식민지적 편파성을 극복하고 그의 확고한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복구 개건 방침을 철저히 견지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일제가 대륙 침략과 조선 인민을 착취할 목적 밑에 주로 해안 연선을 따라 남북으로만 기형적으로 련결시켰던 철도 운수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이 완전히 청산되고 그의 자립적 토대가 튼튼히 구축되였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나라의 산업 지리적 배치에 적응하게 내륙 지방과 동서 해안 지역을 관통하는 가장 합리적인 철도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특히 통과 능력이 부족하고 구배와 곡선이 심한 일부 기본 간선들에서는 이미 전기화가 실현되였다. 전후에만 하여도 철도의 통과 능력이 결핍했던 고원—신성천 간, 명천—홍원 간의 철도선이 전기화되고 해주—하성 간의 200 리 광궤 철도 공사를 비롯하여 300여 키로 메터의 새로운 철도가 부설되였으며 수많은 교량, 굴들이 복구, 개건, 신설되였다. 그와 함께 거의 모든 역 구소들에는 과학적인 사령 지휘 수단들과 선진 기술이 도입되고 기계화, 자동화가 실현되여 철도의 수송 능력과 통과 능력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오늘 1946년의 년간 철도 화물 총 수송량에 해당하는 량을 불과 26 일 간에 수송할 수 있게 되였으며 철도의 화물 순환은 실로 15.9배, 화차 회귀 일수는 1956년에 비하여 약 2 주야나 단축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철도 운수가 이미 인구 1 인 당 화물 순환과 기술 수준에 있어서 선진 국가의 그것을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철도 운수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도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다.

당은 전후 짧은 기간 내에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 하에 현대적 설비를 갖춘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 원산 철도 공장을 비롯하여 자체의 운수 기계 제작 공업 기지를 창설하였다.

지난날 간단한 부속품조차 변변히 생산하지 못 하던 락후한 형편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최신형 전기 기관차, 객차, 화차 등 필요한 운수 수단들과 부속품들을 완전히 우리 힘으로 생산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일부 화차를 비롯한 차량 부속품들을 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되였다.

해방 전에는 불과 몇 사람의 기술자밖에 없었던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지금 수천 명의 기사, 기수, 전문가들과 수만 명의 고급 기능공들을 비롯하여 자체로 철도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술 인재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현대적 공업,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 발전된 사회주의적 철도 운수를 가진 강유력한 나라로 전변되였다.

지난 기간 철도 운수 부문에서 달성한 이러한 모든 성과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어 나고 있는 새로운 천리마의 대고조에 상응하게 철도의 전기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철도 운수 부문의 발전을 한 계단 더 높은 질적 수준에로 급속히 끌어 올릴 수 있게 되였다.

* *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적응하게 철도 운수 부문의 발전을 한 단계 더 선행시키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철도의 전기화를 급속히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전기화를 실현함이 없이는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철도 운수 부문의 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나라의 기술 경제적,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게 운수 수단의 통과 능력과 수송 능력을 백방으로 제고할 수 없다.

철도의 전기화는 우선 철도 운행 자체에 현대적 대규모 공업의 기술적 토대인 전기를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부문의 기술 장비 수준을 제고하고 그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련관된 기타 많은 부문의 기술 장비도 가일층 개선 완성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철도의 구간 통과 능력과 차량 리용률 및 차량들의 생산성의 제고, 철도 운행에서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을 보장함으로써 현존 철로만을 가지고도 철도의 통과 능력과 수송 능력을 급속히 제고시키며 철도 운수의 연료 소비량을 축감하고 막대한 수송 로력을 절약케 하여 철도 경영비와 수송 원가를 저하시킨다.

초보적인 타산에 의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현존 철도의 기본 간선들을 전반적으로 전기화한다면 현재에 비하여 철도의 통과 능력은 근 · 2 배로 높이고 연료 소비량은 5 분의 1로 저하시킬 수 있으며 현존 기관차를 운영하는 로력의 35%를 절약하고 복선 부설시에 요구되는 많은 농토를 추가적으로 더 얻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철도의 전기화를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면 증기 기관차에 의하여 운행할 때보다 동력비는 70% 이상 절약하고 수송 원가는 20% 이상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전기화는 또한 나라의 자연 지리적 조건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산악 지대가 많은 공화국 북반부의 철도 운수에서는 불가피하게 구배와 곡선이 많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복선의 부설에 일정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일 복선을 부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기필코 철도의 전기화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기본 건설 투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또 증기 기관차는 그의 렬차당 견인 능력의 제한으로 하여 구배와 곡선들에서 긴장된 렬차의 통과 능력을 풀 수 없다. 전기 기관차의 견인 능력이 증기 기관차의 그것에 비하여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은 다음의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 가파르기로 이름 난 양덕 고개에서 증기 기관차는 500 톤의 짐을 싣고 시속 60 리 밖에 달릴 수 없다면 전기 기관차는 1, 200 톤의 짐을 싣고도 시속 120 리나 달릴 수 있는 것이다.

철도의 전기화는 철도 운수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보장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전력과 동을 비롯하여 철도의 전기화에 필요한 자원들도 풍부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오직 철도 운수에 전기화를 전반적으로 도입함으로써만 증기 기관차에 의한 철도 운행

이 가지는 부족점들을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시정하고 7 개년 계획 기간에 철도 운수 부문 앞에 제기된 화물 및 려객 수송 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철도 운수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다.

지금 교통 운수 부문 앞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례 없는 발전 속도와 공업 및 농업 생산의 비약적인 장성에 따라 날로 더욱더 큰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 운수 부문 앞에만 하여도 7 개년 계획 기간에 화물 수송량은 2 배로, 화물 순환은 1.9 배로, 화물 렬차의 평균 견인 중량은 1,000 톤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1967년에 가서는 한 해 동안에 7천 5백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175억 톤 키로 메터에 달하는 화물 순환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 시기 철도 운수 부문 앞에 나선 이러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철로의 배치, 륜전 기재의 합리적 리용 등과 함께 반드시 철도의 전반적인 전기화를 실현함으로써 철도 운수의 통과 능력과 수송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철도의 전기화가 오늘 우리 나라 철도 운수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로부터 오는 합법칙적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철도의 전기화—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철도 운수 부문에서 기술 혁명의 중심이며 통과 능력 제고의 기본 방도이다.

우리 나라 철도 운수 발전의 이 방향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발씀하였다:

《전력 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며 수송 능력을 높이고 수송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서는 철도를 전기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철도 운수의 장래 발전은 철도를 전기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선집 제 6 권, 39 페지)

우리 당은 벌써 오래 전부터 철도 운수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장차 우리 나라에서 철도의 전기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조건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힘을 돌리여 왔다.

그리 하여 오늘 우리는 나라의 철도 전기화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였으며 무려 18만 여 개의 부속품들을 생산하여 조립하여야 하는 복잡하고 정밀한 최신형 전기 기관차들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 우리의 자재로 다량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1 년 간에 30 여 대 이상의 《붉은 기》호 전기 기관차가 생산되고 있으며 수은 정류기, 견인 전동기, 변압기 등 철도의 전기화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충분히 생산 공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 기간 내에 현존 철도의 통과 능력이 긴장되고 구배와 곡선이 심한 구간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본 간선들에서 전기화를 완성할 보람찬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신의주 간, 평양—개성 간, 희천—고인 간, 평양—덕천 간, 고원—평강 간 등 철도 운수의 주요 간선들에서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며 수 많은 《붉은 기》호 전기 기관차와 새로운 형의 고속도 전기 기관차가 생산되여 조국의 동맥을 달리게 될 것이다.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철도의 전기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금후 매년 300 키로 메터 이상의 철도 전기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7 개년 계획 말에 가서 우리 나라 철도 운수의 전기화 비중은 40% 이상 달하게 되며 철도 총화물 순환의 60~70%를 전기 철도가 담당하게 된다.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철도 전기화의 전망은 실로 휘황찬란하다.

이 원대한 전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의 전기화 공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공사는 우선 그 규모에서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방대한 것으로서 그 길이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전후 7 년 간에 진행한 철도 전기화 총 연장 길이의 1.9 배에 달하며 최근 2 년 간에 진행한 철도 전기화 공사량의 2.6 배 이상에 해당된다. 이것은 전차선의 가설에서만도 공사 결의 기간 내에 지난해에 비하여 매일 500 %의 작업 능률로 매일 2,100 메터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이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현대적 시설을 갖춘 10 개의 새로운 변전소와 2 개의 전철구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일체 기계 설비를 새로 장비하고 렬차의 견인력과 통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19 개 역 구내의 유효장 확장과 선로 개량 공사, 추도 하로 공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의 철도 전기화 공사는 그 규모에서 이와 같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구간이 우리 나라 철도 운수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금년에 이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업—나라의 철도 전기화를 더욱 전진시키고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 데서 커다란 기여로 될 것이다.

* *

그의 규모가 전례 없이 방대하고 작업 공정 자체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평양—신의주 간, 평양—신성천 간의 철도 전기화 공사는 불과 한 해 사이에 그것도 기한을 훨씬 앞당겨 완성하여야 할 극히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이 공사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구간에서 렬차의 무사고 정시 운행을 보장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서는 우선 그를 직접 담당 수행하는 철도 운수 부문의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의 주도 세밀한 조직 지도 사업이 요구된다.

이에 있어서 이 부문 산하 전체 건설자들과 대중들에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철도 전기화가 가지는 의의와 철도 운수 부문의 기술 혁명 수행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 현 시기 이를 촉진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와 그 수행 방도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전체 건설자들을 이 사업에 보다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으며 공사를 최단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통 운수 부문의 각급 건설자들과 지도 일'군들은 이미 편성된 전기 철도 건설 련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철저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며 시공 조직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 제시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공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업 대상들이 분산되여 있으며 그것이 높은 기술적 지도를 요하는 사정은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지도에서 행정 조직 계획화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한다. 공사의 순위를 작업 대상 별로 정확히 규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재, 설비, 공구 지구들을 충분히 갖추며 그를 합리적으로 공급할 때에만 모든 작업이 정확히 시공 조직 계획에 근거하여 치차와 같이 딱딱 맞물고 돌아 갈 수 있으며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차 선로 건설과 병행하여 역 구내 확장과 통신 선로 이설 등 부대 공사를 그에 선행시키며 송전선 및 견인 변전소 공사를 추진시켜 철도 전기화 공사의 조업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계단 별로 보장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금년도 전기화 공사를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경제 지도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성 지도 간부들로부터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지 전투 단위에 지도를 접근시키며 대중 속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하고 제시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방도를 대중과 토론하여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장을 우리의 로동 계급과 청년들의 창조와 위력이 맥박치며 시간마다 새 기적과 혁신이 일어 나는 위대한 전투 마당으로 전환시키며 혁명적 정신과 힘이 약동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 학교로 전변시켜야 한다.

철도 전기화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철도 전기화 건설장의 모든 곳에서 기계가 더 많이 일을 하게 하고 보다 능률적인 기계가 작업하도록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며 선진적이며 능률적인 기계들을 부단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매개 중대와 소대에 이르기까지 월 1 건 이상의 선진 기술과 1 인 1 건 이상의 창의 고안, 합리화안들을 적극 일반화하여야 한다.

철도 전기화 공사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대중적 기술 혁신과 함께 이미 도입되고 있는 건설 기계들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모든 건설장들의 실정에 맞게 선로 조립 건설용 렬차, 기중기, 엑쓰까와또르, 불도젤, 전주 굴착기 등을 비롯한 능률이 높은 각종 대 소형 기계들을 광범히 도입하여 그의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철도의 전기화—이것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여질 귀중한 재부이다.

따라서 매개 공사에서 그의 질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휘 성원들은 설계의 정확한 료해에 기초하여 기술적 지도와 보장 조건을 선행하며 기술 행정 검사 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시공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여 건설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동시에 자재의 소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며 자재 보관 관리 사업을 개선하며, 한 그람의 동, 한 줌의 세멘트, 한 토막의 강재라도 더 절약하기 위한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의 백년대계로 되는 철도 전기화의 실현은 많은 기술 인재와 지도 일'군을 요구한다.

따라서 철도 운수의 모든 단위들에서 전기 기관차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자 양성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전기화가 실현된 후 그를 능숙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차 승무원, 변전소 운전공, 전차 선로 수리공, 전기 기관차 수리공들과 지도 일'군들의 대렬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여기에 강력한 지원을 주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철도 전기화를 지원해 나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련대적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협동 생산의 계획화 수준을 일층 제고하며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전기화 공사장에 각종 건설 기자재와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과 평양 전기 공장들에서는 변압기, 전동기, 수은 정류기 등을, 주을 전기 공장에서는 애자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하며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에서는 결의한 37 대의 최신식 전기 기관차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 철도 전기화 공사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량의 동이 요구된다. 매개 동 광산들에서는 철도 전기화 공사에 필요한 동을 더 많이 보내 주기 위하여 동 생산을 증대시키며 제련소들에서는 동 제련의 실수률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모든 단위들에서는 전 인민적 운동으로 동을 비롯한 원자재들을 극력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철도 전기화 공사를 이미 결의한 대로 평양—신의주 간은 금년 5.1 절까지, 평양—신성천 간은 금년 8.15 까지 완공함으로써 천리마 시대의 기상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시위하자!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자

김 세 봉

오늘 우리 당은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격히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발전하는 현실에 상응하게 상품 류통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것은 인민 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금년도 과업 수행의 중요한 일환이다.

지난 기간 우리의 사회주의 상업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하여 왔다.

소매 상품 류통액은 전쟁 전인 1949년에 비하여 1963년에는 7.9 배로 장성하였으며 주요 소비 상품의 공급량을 보면 같은 기간에 육류는 10.6 배, 수산물은 2 배, 식용유는 12.2 배, 채소는 48.6 배, 과실은 20.5 배, 면 및 스프직물은 13.1 배, 기성복은 53.2 배, 내의류는 25.4 배, 양말은 7.1 배, 신발류는 4.6 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특히 최근 년간에 인민 소비품 생산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라지오, 시계, 재봉기 등을 비롯한 실로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대량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리 하여 우리의 상업은 근로자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날로 장성하는 근로자들의 수요와 급격히 확대되는 인민 경제의 발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상업 부문 앞에는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미 의식주 문제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도 모르게 된 우리 인민들은 오늘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문화적으로 생활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의 호소를 높이 받든 우리 근로자들은 질 좋고 다양한 일용품과 맛 있고 영양가 높은 각종 식료 상품의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필연코 사회주의적 생산과 근로자들의 소비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면서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각종 생활 필수품을 원활히 공급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상업 부문 앞에 보다 새롭고 영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바로 이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1962년 9월 3~4일과 1963년 11월 22일 우리 상업 부문 앞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 *

현 시기 우리 상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들 중에서 첫 자리에 나서는 것은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식주 문제 해결에서 먹는 문제는 항상 기본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인민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주식물과 주요 부식물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된 오늘에 와서는 보다 맛 있고 영양가 높은 고급 식료 상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다.

주식물인 쌀이 무료나 다름 없는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우리의 조건에서는 맛 있고 영양가 높은 고급한 식료 상품으로부터 세소한 조미료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식료품, 특히 부식물을 정상적으로 공급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있어서 도시 및 산업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새로 형성된 주택 지구 근로자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변천된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따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로동자, 사무원들은 식료품의 대부분을 자체 해결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과는 달리 자기 수입의 압도적 부분을 식료 상품 구입에 지출하게 된다.

우리 당이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특히는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 사업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도시와 로동자 지구에 대한 공업 상품의 공급을 계속 증가시키는 동시에 식료품 공급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대폭적으로 올린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다.》 (선집 제 5 권, 40 페지)라고 강조하였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를 중심으로 매개 시, 군에서 식료 상품 생산 및 공급 기지를 축성하는 것은 이 지구 근로자들의 수요를 지방 자체 생산으로 충당시키는 관건적 문제로 된다.

이것은 식료 상품의 공급 원천을 확고히 보장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산과 소비를 계획적으로 련결시켜 주며 다종다양한 식료 상품들을 지방적 특성에 맞게 가장 눅은 값으로 제때에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식료 상품 생산 및 공급 기지를 꾸리기 위하여 시, 군 인민 위원회 및 상업 기관들은 각종 식료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시기 별, 품종 별, 용도 별로 정확히 타산하여 식료 공장들과 부근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 다양한 식료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수매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매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수매 사업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부산물에 대한 수매와 교류를 통하여 농민들의 현금 수입을 증대시키며 생산을 자극하고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 기여한다.

수매에서는 국가 계획 수매도 중요하지만 식료 상품의 많은 부분이 국가 계획권 내에 인입되지 못 하고 있는 조건에서 각종 식료 상품과 농부산물에 대한 자유 수매를 강화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식료 상품 수매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식료 상품의 자유 수매 품종과 지역 가격에 대한 온갖 통제와 제한을 없애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의하여 수매, 공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시, 군 인민 위원회 및 상업 기관들은 당 위원회들의 지도 밑에 수매 일'군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수매 도구, 자금 기타 수매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는 동시에 매개 수매원들로 하여금 농민들 속에 들어 가 당의 수매 정책을 해설하여 주고 각종 수매 원천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수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그들의 책임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함에 있어서 농민 시장을 적극 리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현 시기 농민 시장은 농산물의 집산지로, 수매 교류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농민 시장을 통하여 국영 농목장과 협동 농장 그리고 농장원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식료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수 있다.

각 도 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는 1~2개의 매일 시장 또는 정기 시장을 개설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관리 운영 사업

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시, 군 인민 위원회들과 상업 기관들은 농민 시장에 더 많은 상품 원천을 동원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각종 식료품을 년중 계속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매개 협동 농장들과 농장원들이 자기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온갖 편의와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더 많은 가공 식료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녀성들이 부엌'일로부터 해방되여 더욱더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되고 있는 조건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가공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경공업과 지방 공업이 생산하는 것 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상업 기관 자체 가공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업 기관들의 자체 가공 사업은 큰 투자 없이 보다 눅은 값으로 주민들의 계절적 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킬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적 수요와 자기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각종 부식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상업 기관 자체 가공은 매개 식료품 상점 단위로 2~3 명의 녀성 로력을 가지고 소규모적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아빠트 밑에 간단히 차려 놓고서도 할 수 있다.

식료품 상점들과 식당들에서는 공장들에서 손이 덜 미치는 품종들과 제2 차적 가공을 요하는 식료품 례하면 장류, 기름류, 채소류, 조미료, 젓갈류, 수산물, 육류, 과실, 과자류 등을 다양하게 가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잘 변질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각종 장류, 기름류, 젓갈류, 절음류, 통졸임, 조미료 등은 종합 식료 상점에서 생산하여 분점에 공급하여 주며, 변질되기 쉬운 반찬류 같은 것은 식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료품 가공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그에 필요한 저장 및 랭동 시설을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많은 경우에 부식물은 그의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온도, 습도 등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쉽게 부패 변질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은 부식물의 가공과 함께 그의 저장 및 랭동 체계 확립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부식물의 저장 및 랭동 설비는 생산지와 소비지에는 물론 부식물 공급을 담당한 소매 상업 기관, 기업소들에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식물 수송을 위한 랭동 수송 기재와 용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료품 공급 사업의 성과는 잘 째여진 공급 및 봉사 조직을 통해서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달성된다.

식료품의 공급 및 봉사 조직에서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식료품의 판매 지점을 어떻게 포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식료품은 공업 상품과는 달리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매일 매시 없어서는 안 될 상품이며 그것은 특히 가정 주부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식료품의 판매 지점은 주민들의 생활 단위 즉 주택 지구에 최대한으로 접근시켜야 하며 판매 시간은 가정 주부들이 아침 저녁으로 보다 짧은 시간에 필요한 부식물을 마음 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조건에 상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식료품 공급 사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식료품 상점들에서 판매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한 각종 식료품은 알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며 사철 떨구지 말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식료 상품 매대 조직을 고객들과 판매원들의 봉사 활동에 편리하도록 하며 소포장 판매, 선별 판매, 소포 판매, 위탁 판매 등 다양한 판매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식료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당적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품종 별, 등급 별, 선도 별로 정확히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급양 사업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사회 급양 사업의 강화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적응하게 생활을 조직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녀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 주고 그들의 사회 진출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논다.

사회 급양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밥 공장과 가족 식당을 비롯한 각종 대중 식당망을 더 확대하며 민족 료리를 비롯한 각종 음식물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밥 공장과 가족 식당—이것은 가정의 부엌'일을 대신하는 공동 주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손님들이 구미에 맞는 음식을 마음 대로 먹을 수 있게 필요한 설비 조건들을 갖추어 주어야 하며 세분 판매를 실속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 료리와 고급 료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증설하며 특히 이 부문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것이 사회 급양 사업의 개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청량 음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 청량 음료점들에서 철을 따라 과즙, 사이다, 맥주, 아이스크림, 화채류, 수정과 등을 더 많이 공급하며 밤, 고구마, 락화생들도 제철에 충분히 확보하여 광범히 가공 공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로, 상업 부문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은 공업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근로자들의 수요가 비교적 단순하였던 지난 시기에 있어서는 상품의 품종 구성이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 근로자들은 보다 다양한 일용 필수품과 고급한 상품을 더욱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당은 인민들의 이러한 요구와 조성된 확고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금년에 모든 가정들에서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전기용품, 문화용품과 철제 일용품 및 합성 수지제 일용품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질 좋은 일용품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각급 상업 기관들에서는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수요와 소비 상품 생산의 급격한 장성에 적응하게 공업 상품의 품종과 구성을 부단히 개선하며 특히 가정용 필수품과 세소 일용품 및 문화용품의 공급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업의 조직과 기술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당은 오늘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각종 일용품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에 의하여 농업 생산이 부단히 증대됨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공업 상품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게 되였다.

당과 정부는 또한 농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국가적 혜택을 돌리고 있다. 1963년도에만 하여도 협동 농장들에 공급되는 기계 설비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공예 작물의 수매 가격을 인상하는 등으로 7천여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적 혜택을 농민들에게 주었으며 막대한 량의 현물세와 대부금을 면제하고 작년 영농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많은 협동 농장들에 수 많은 기계 설비와 생활 필

수품을 시상하였다.

당은 또다시 새해의 선물로 전체 농촌 어린이들에게 100여만 벌의 겨울옷과 모자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 농민들에게 무려 1억 9천여만 원의 국가적 혜택을 주었다.

농업 생산의 장성과 농민들에 대한 당의 배려의 결과 금년 1.4 분기에 농민들의 구매력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근 2 배로 장성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상업이 농촌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농촌 상점망을 지역 단위로 재정리 포치하며 그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야 할 것이다.

각급 상업 기관들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농민들의 수입의 장성에 상응하게 값이 눅고 튼튼한 각종 직물류와 솜동복, 작업복을 비롯한 각종 기성복과 편직물, 라지오, 재봉기, 시계, 자전거 등을 비롯한 기타 각종 일용 필수품과 문화용품들을 집중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당의 정확한 정책과 배려에 의하여 벌방 지대 농민들보다 못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 창성, 무산 등 산간 지대 농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에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세째로,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상업 기관들에서 주문에 의한 공급 제도를 확립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는 도매 상업 기관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 상점들에서 주문에 의한 상품 공급 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다.

주문제는 각종 수요를 소매, 도매를 거쳐 생산에 반영시킴으로써 생산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조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생산한 제품을 각 계층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도매, 소매를 거쳐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상품 공급 제도이다.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와 생산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상업과 생산 간, 상업 내부 호상간 상품 운동의 모든 활동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는 기초로 된다.

주문제를 실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정확히 연구 타산하는 것이다.

시, 군 인민 위원회들과 매개 상업 기업소들에서는 상품의 매 품종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와 지대 별 각 계층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전반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상품에 대한 수요는 고정 수요 연구 체계와 선택 조사 연구 방법 등을 옳게 결합시켜 타산하여야 하며 또한 현 재고와 과년도의 실적 그리고 생산 능력 등을 옳게 타산하여 생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매개 상점 일'군들은 천천 종합 상점 2중 천리마 작업반장 정 춘실 동무의 모범을 따라 봉사 구역 내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정확히 장악하고 매달 계획적으로 도매 기관에 주문하여야 하며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확고히 기초하여야 한다.

도매 기관 일'군들은 소매 기관으로부터 상품 주문서가 올라 오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매망에 직접 내려 가서 도매소 상품 재고의 구성과 그의 견본, 앞으로의 생산과 공급의 가능성 등 모든 것을 알려 주며 일단 주문 받은 상품은 제때에 송달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품이 체화, 편재되는 일이 없도록 제때에 교류 조절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상품들이 류통망에 반입되도록 생산에 대한 반작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네째로, 편의 봉사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편의 봉사 사업의 개선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몸차림, 옷차림을 문화적으로 할 데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각종 새로운 일용품과 문화용품들이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편의 봉사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편의 봉사망을 확장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포치하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각종 수리, 수선소들을 증설하는 동시에 특히 그것을 실정에 맞게 포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의 봉사망 포치에서는 업종이 류사한 것들은 구역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현대적 설비를 갖춘 종합 편의 시설망으로 개편하며 기타 특수한 것들은 주민 지구의 개별적인 요소에 포치하여 전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수리, 수선 작업의 특성을 옳게 타산하여 고정 수리와 이동 수리를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동시에 편의 시설망들에서 부분품, 부속품들을 수매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겸하여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편의를 백방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 기술 문화 혁명이 진척되는 데 따라서 편의 시설과 각종 수리, 수선망을 더욱 확장하며 그에 필요한 일'군들을 배치하고 관리 운영 사업을 잘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리, 수선 사업을 비롯한 편의 봉사 사업에 소요되는 설비, 기계, 도구들과 원재료들은 지방 상업 총국이 책임지고 지방 산업과 중앙 공업 기업소 생활 필수품 직장과의 련계 밑에 계획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편의 봉사 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조건의 하나로 된다.

편의 봉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일'군들이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표준 조작법과 기술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며 수리, 수선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도 편의 일'군 양성소 사업을 강화하며 편의 봉사 일'군들 속에서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급 이상 높이기 위한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 ＊

상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현 시기 상품 류통 사업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신천 지구 당 및 정권 기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현 시기 군 인민 위원회의 첫째 가는 임무가 상업이며 따라서 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의 중심을 상업에 두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상업이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사업에서 첫째 가는 임무로 되는 것은 우리 인민 정권 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민 위원회들로부터 지방 산업과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기능이 분리되고 지방 상업에 대한 지도가 모두 그에 이관된 사정과 관련된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문제 특히 상업을 직접 틀어 쥐고 책임적으로 조직 지도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군 인민 위원회가 상업을 잘 조직하고 옳게 지도할 때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나라의 전반적인 류통 사업이 잘 되며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이 다 같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로동자, 농민들의 협조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며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이 상업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계획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상업에서 계획화 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우리의 생산이 계획적인 것 만큼 분배와 소비도 계획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상품 류통 규모가 방대하여지고 그 품종 구성이 다양하게 된 현 시기 상업에서 계획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상품 공급 사업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업의 계획화에서는 우선 상품 류통을 다른 인민 경제 부문들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상품 원천, 상품 공급, 판매 능력 등 상업 내부 환절들의 고리를 계획적으로 련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업 기관, 기업소들에서의 상품 류통 계획은 개별적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객관적 현실과 가능성을 옳게 타산하여 정확히 작성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군중 로선에 철저히 의거하여 계획을 직접 실행하는 일’군들과의 광범한 토의 밑에 상업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일’군들이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군 인민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매개 상업망들에 내려 가서 상품의 매 품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와 지대 별, 계층 별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며 상품의 현 재고와 과년도의 실적 그리고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품 류통 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매개 상업망들에서는 매대 별로 개별적 판매원과 접대원에 이르기까지 매일 계획 과제를 품종 별로 주고 그의 실행에 대한 총화 평가 사업을 매일, 매주, 매월, 매 분기마다 진행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시,군 인민 위원회들에서는 매개 상업 기업소들의 계획 수행 정형을 매월, 매 분기, 년간을 통하여 계통적으로 장악 분석하고 약한 고리를 찾아 내며 그 고리를 추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 전체 상업 일’군들을 조직 동원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상업에 대한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지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업 기업소들의 기업 관리 운영 사업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 관리는 물자 재산, 화폐 재산, 로력 등에 대한 관리를 잘 하여 나라에 보다 많은 리익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매개 상업 기업소의 수익성을 높이며 살림살이를 잘 꾸리는 문제로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개 상업 기업소 단위 책임자로부터 판매원, 접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군들이 수지 타산을 할 줄 알며 온갖 예비를 찾아 내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도록 그들의 관리 운영 지식을 높여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업 부문 일’군들로 하여금 상품 보관 관리를 잘 하며 상품 입출고 제도와 실사 규률을 강화하여 상품의 부패, 변질, 파오손 현상을 근절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매개 단위에서 내부 채산제를 강화하며 물차 재산에 대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고 고정 재산을 옳게 관리하며 각종 시설들과 랭동기, 기타 설비 비품들의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 규률, 부기 계산 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 경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재정 부기 일’군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데 주목을 돌릴 것이다.

지방 인민 위원회들은 상업의 모든 단위들에서 직접 부문의 로력 비중을 계통적으로 높이고 부양 가족 로력과 림시 로력을 광범히 인입하며 로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매개 상업 기업소들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로동 정량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도급제 및 우대제, 상금제를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도록 백방의 지도를 주어야 한다.

상업에 대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자체 실정에 맞게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차적 문제는 상업을 직접 지도 관리하는 도 인민 위원회 상업 관리국과 시, 군 인민 위원회 상업 관리부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매개 상업 단위에 내려 가 실속 있게 도와 주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업 부문 지도 일’군들이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하여 한 점을 뚫고 거기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며 전체를 추켜 세우는 사업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상업을 새 현실에 맞게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주문에 의한 상품 공급 조직의 완성, 주민들에 대한 높은 봉사성, 상품 화폐 재산의 옳은 관리와 수익성의 제고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모범 상점》, 《모범 상업군》 창조 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 그 대렬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 방법을 상업 부문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은 옳은 검열 사업과 밀접히 결부됨으로써만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 활동에 대한 국가적 및 전 사회적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조직 특히는 봉사성에 대한 지도 검열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품 화폐 재산의 보관 관리에 대하여서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상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방 당 조직들이 이 부문에 적극적인 지도를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조직들은 상업 일’군 대렬을 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줄 알며 인민 대중의 신망이 높은 사람들로 튼튼히 꾸려 주고 그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모든 상업 일’군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큰 주목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상업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고률의 리윤을 짜내는 자본주의 상업과는 반대로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복무한다. 때문에 사회주의 상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줄 아는 그러한 혁명적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업 일’군들이야 말로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머니와 같이 돌보아 주는 가장 존경 받는 귀중한 사람들이며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민의 충복이 되는 데 있다고 간곡히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항상 상업 일’군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상업 부문 사업 개선의 가장 기본적이며 결정적 고리로 인정하고 그를 강화하기 위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다. 그리 하여 상업의 모든 단위들에서 정치 사업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또한 상업 일’군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국가적 대우를 개선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회주의 상업의 우월성을 상업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성, 대중성, 계급성에 가초한 높은 봉사성을 소유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

다.

상업 그 자체가 인민 대중의 생활 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돌보아 주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만큼 상업 일'군들의 활동은 대중과의 접촉, 대중들의 요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인민성, 대중성은 인민 대중에 대한 관점에서, 대중과의 련계에서, 그들에 대한 태도에서 표현된다.

이는 상업 일'군들로 하여금 대중들의 생활 상 요구에 누구보다도 민감하며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 책임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립장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모든 상업 일'군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즉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인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생산에 대한 상품 주문 과정에서 인민성, 대중성이 표현되도록 상업 일'군들을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인민성, 대중성은 계급성의 원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상업에서 계급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상품 공급 사업을 사회주의 건설에 유익하게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방향에서 조직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만이 상품 공급에서 높은 봉사성은 자기의 생활력을 나타낼 수 있다.

상업 일'군들에 대한 교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을 항일 빨찌산 후방 공급 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상업 활동에서 높은 책임성과 혁명적 전개력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상업 단위들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산 모범과 혁명 선렬들의 투쟁 정신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현실은 우리 상업 일'군들이 보다 정치적으로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세련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상업 일'군들에게 상품에 대한 지식과 상품 포장, 진렬, 취급 방법 그리고 영양 위생학, 료리 제조법, 카로리 및 원가 계산, 접대 봉사 방법, 재정 부기 계산과 기업 관리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상업에 대한 전 인민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상업 발전을 위하여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과 그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상업 발전에 대한 그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이 상업 일'군들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전체 상업 일'군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과 상업 부문에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이룩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 과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자.

남조선에서의 로동 운동의 앙양

윤 영 호

최근 남조선에서는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이 앙양되고 있으며 그 불'길은 남조선 도처에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

관영 기업체와 민영 기업체의 수많은 로동자들이 이 투쟁에 망라되고 있으며 수 개월 간 쟁의에 들어 서고 있다.

이것은 미제와 괴뢰 정권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반항의 표시이며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더욱더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그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 로동 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계급 의식이 더욱 제고되였다는 표시이다.

오늘 남조선 로동 운동의 특성과 성격을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조국 통일 위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오늘 남조선 로동 운동은 그의 규모와 성격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장성 발전하고 있다.

우선 로동 운동이 대중적 성격을 띠면서 대규모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의 련대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로동 쟁의에는 각이한 직종과 구성 성분을 가진 로동자들이 망라되고 있다.

즉 철도, 운수, 광산, 부두, 전력, 섬유, 체신, 전매, 출판, 금융 부문 및 미군 부대에 이르기까지 150여 개에 달하는 괴뢰 관영 및 개인 기업체들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쟁의에 참가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로동 운동이 비교적 활발히 전개된 4. 19 이후 시기에도 최고 만 명 단위에서 쟁의가 진행되였다면 금번 쟁의에는 무려 14만여 명 이상의 로동자들이 망라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한 로동자들이 쟁의에 참가한 것은 해방 후 일찌기 그 류례가 없는 일이다.

남조선 어용 출판물들까지도 최근의 로동 쟁의를 《전례 없는 대규모의 쟁의》라고 인정하는 데 이르고 있다.

대규모적인 로동 쟁의는 불피코 남조선 로동 계급의 련대성을 점차 강화케 하고 있다.

작년 초까지만 하여도 로동 쟁의는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의 테두리를 벗어 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시작된 철도 부문 로동자들의 쟁의에 호응하여 일떠선 각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은 련쇄 반응을 일으키며 계속 확대 발전하고 있다.

지난 1월 철도, 체신, 전매 부문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 조건이 100% 달성될 때까지 생사를 같이 해서 싸울 것》을 결의했으며 지난 2월 초에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 조건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남조선 로동 쟁의가 로조들 간의 단순한 호응, 지지

정도가 아니라 수 개의 단위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전면적으로 발전할 추향을 보여 주고 있다.

말하자면 로동자들의 투쟁이 개별적인 공장 단위에서 산별적인 투쟁에로, 지역적인 투쟁에로, 나아가서는 전 남조선적인 범위의 투쟁에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번 쟁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로동 계급 대렬 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간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진출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으며, 비교적 요구 조건이 높고 투쟁에서 적극성과 완강성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기간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은 부두 하역, 토건 부문과 경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에 비하여 비교적 약하게 전개되였다.

저조 상태에 있던 기간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은 최근에 이르러 금속, 광산, 화학, 철도, 운수 등 각 부문에 걸쳐 일제히 투쟁에 돌입함으로써 어느 부문보다도 급격히 장성하고 있으며 점차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심을 이루고 기타 광범한 로동자들을 투쟁에로 고무함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였다.

투쟁에 궐기한 남조선 로동자들은 체불 임금의 즉시 지불과 현행 임금을 40~100% 올릴 것을 강경히 요구하고 있으며 괴뢰 정권의 반동적인 보수 정책을 반대 배격하고 있다.

남조선 은행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 간에 있어서 물가 지수의 장승률은 약 40%인데 로동자의 로임은 그 대로 답보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가계 유지비는 최저 생활비도 되지 못 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 정권은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철도 료금 15%, 학비 20~50% 인상하였으며 《보수 통제법》 등으로 로동자들의 생활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금번 로동 쟁의는 물가의 앙등과 생활고, 괴뢰 정권의 반인민적 로동 보수 정책에 대한 불만과 직접 관련되여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들은 로동자들의 완강한 투쟁에 당황하여 이것을 무마하며 탄압하려고 갖은 흉계를 다 꾸미고 있다.

그들은 반동적인 남조선 《로총》 간부들을 초청하여 《만찬회》를 베풀며 로동 쟁의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하는 한편 로동 관계법을 개악하며 《한 미 공동 회의》니, 《로동 관계 8부 장관 회의》 등 탄압 모의를 빈번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로동 계급은 간악한 탄압과 와해 책동에 굴하지 않고 미제와 괴뢰 당국을 반대하며 자기들이 내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부문의 로동자들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파업을 결의해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오늘 남조선 로동자들 속에서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자각이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남조선 로동 운동의 주요한 특징은 아직도 경제 투쟁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나 그것이 점차 정치 투쟁에로 발전하고 있으며 투쟁의 예봉이 괴뢰 정부와 미제에게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 로동 계급은 생활 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보수 통제법》, 《로동 위원회법》, 《로동 쟁의 조정법》 등을 비롯한 각종 로동 관계 식민지 악법들을 철폐 및 개정할 것을 완강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기 대중적 규모에서 강력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는 남조선 로동 계급의 투쟁은 개별적인 기업주들이 아니라 주로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인 괴뢰 정부를 투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미제 략탈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로동 계급의 투쟁이 당면 경제 투쟁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로동 운동에서 정치적 성격이 더욱더 농후해지는 것은 운동 발전의 객관적인 합법칙성의 발현이다. 그것은 로동 계급이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종국적인 해방을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 경제적 악의 근원인 자본주의 착취 제도 자체를 전복하여야 할 필요성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조선 로동 계급이 투쟁을 통하여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판가리 싸움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데로부터 오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날로 앙양되고 있는 남조선 로동 운동 내부에서의 점차적인 질적 변화 및 정치적 성격의 강화 그리고 그것이 남조선 인민 투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는 남조선 로동 계급이 전 인민적인 반미 구국 투쟁에서 점차 자기의 령도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로동 운동은 대규모적으로 앙양되고 있으나 지도자의 결여, 조직성, 의식성의 미약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한성을 나타내고 있다.

남조선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로동 쟁의권은 대체로 《한국 로총》과 같은 어용 로조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태업, 파업 등 실력 행사에 들어 가는 것을 주저하며 중재, 조정 등의 방식에 너무 오래 매달리고 있다.

례컨대 2만 7,000여 명의 남조선 철도 부문 로동자들은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현행 임금 100% 인상을 요구하여 쟁의에 들어 갔으나 아직까지 실력 행사에 들어 가지 못 하고 《철도청》의 중재, 조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산별 로동자들 간에 조직적 련계를 맺으려는 추세는 점차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산별 로동자들 간의 조직적 련대성이 미약하며 어용 로조의 무마, 파괴 책동으로 쟁의가 각개 격파당할 징조를 보이고 있다.

체신 부문 로동자들이 약간의 체불 임금의 지불에 순응하여 로동 쟁의에서 물러 선 것은 그의 구체적 실례이다.

금번 쟁의에서 괴뢰 정부의 소위 《보수 통제법》을 비롯한 반동적 로동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였으나 많은 경우에 경제적 투쟁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로동 운동의 약점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철도 부문 로동자들이 성명에서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고한 로동의 시점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경제적 투쟁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 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조선 로동 계급을 참을 수 없는 빈궁과 무권리 속에 몰아 넣고 있는 식민지 테로 통치 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는 로동 계급의 진정한 해방이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련결시키며 경제 투쟁에서 점차 정치 투쟁에로 이행함으로써만 남조선 로동 계급은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오늘 남조선 로동 운동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제한성은 투쟁 행정에서 점차 극복될 것이며 투쟁에 일떠선 로동 계급은 더욱 의식화되고 조직화될 것이다.

2

최근 시기 남조선 로동 운동의 새로운 추세에로의 발전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사회 경제적 근원은 독립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과 다르다.

독립적인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인 로자 간의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다면 식민지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제국주의와 그 주구인 지주, 예속 자본가를 청산하기 위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다.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에서의 로동 운동의 사회 경제적 근원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들과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과 그에 복무하는 남조선 예속 자본의 압박과 착취에 의한 남조선 로동 계급의 처지의 체계적인 악화와 식민지 파쑈 통치에 의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미국 독점 자본, 예속 자본과 남조선 로동 계급 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가일층 첨예화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남조선 민족 산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였으며 막대한 실업군이 조성되였다.

미제는 고용군의 유지비에 필요한 막대한 군사비 념출을 위하여 남조선 로동 계급에 대한 가혹한 식민지적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력의 가치로부터의 로임의 배리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의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한계를 훨씬 더 벗어나고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 생계비의 3 분의 1도 못 된다. 식민지 기아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수 개월씩 밀리고 있다.

로동 시간은 하루 10~16 시간을 넘으며 기술 발전이 정체된 조건에서 고된 로동이 강요되고 있다.

실로 남조선에서 로동 계급에 대한 주요 착취자가 미국 독점 자본인 조건에서 계급적 모순과 민족적 모순이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미국 독점 자본, 그에 복무하는 예속 자본과 남조선 로동 계급 간의 모순의 첨예화는 남조선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일당은 《민정 이양》을 계기로 재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관영 료금 및 학비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수입 물자에 대한 《시가 역산제》의 도입과 《림시 외환 리득 세법》에 의한 딸라 환률의 인상을 통하여 물가의 등귀를 더욱 자극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도탄 속에 몰아넣었다. 특히 박 정희 도당은 갖은 악법들을 조작하여 로동자들의 생활 처지의 개선을 백방으로 저애하고 있다.

남조선 로동 계급의 쌓이고 쌓인 반미, 반《정부》적 감정은 《제 3 공화국》의 첫 《선물》인 각종 료금의 인상과 물가의 등귀, 반동적 로동 정책 등 학정을 계기로 일시에 폭발되였다.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은 남조선 로동 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투쟁에 궐기한 남조선 로동 계급은 항상 북반부를 우러러 보며 거기에서 희망과 승리의 신심을 얻고 있다.

지금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에서 급격하게 앙양되고 있는 로동 쟁의와 관련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진퇴량난에 빠지고 있다.

현재 박 정희 도당은 로동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도 또한 접수도 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지고 있다.

그들이 로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거부하지 못하는 리유는 로동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일 남조선 로동자들이 파업과 같은 실력 행사에 들어 서면 로동 쟁의의 규모가 큰 것 만큼 남조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특히 남조선 산업에서 기간적 부문인 전력, 석탄, 철도 부문 로동자들이 쟁의를 벌리고 있는 것 만큼 이들이 실력 행사를 단행한다면 남조선 경제는 더한층 마비될 것이다.

반대로 박 정희 도당은 원래 로동자들의 요구에 순응할 생각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만한 밑천도 없다.

만일 로동자들의 요구 대로 임금을 인상하면 령세 관영 기업체와 민영 기업체들이 더욱 큰 재정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 하여 괴뢰 정권은 임금 인상 여부에 대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미국과 이미 체결한 《재정 안정 계획》에 따라 년말 통화량을 400억 원 선으로 한정한 관계로 화폐 증발권을 사실 상 제한 당하고 있다. 만약 화폐를 란발한다 하여도 오히려 그것은 물가의 앙등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며 괴뢰 정권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박 정희 도당은 로동 쟁의를 탄압, 회유, 무마하는 방법으로 저지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박 정희 도당들은 관영 기업체들에 적용하고 있는 《보수 통제법》을 폐기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수당금을 다소 인상하는 것으로써 회유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 주지 않는 한 어떠한 타협 조건도 받아 들이지 못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표시하고 있다.

례컨대 박 정희 도당은 2월 10일 철도 부문 로동자들의 임금을 7%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쟁의를 무마하려고 들자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 모든 것은 박 정희 도당이 앙양되고 있는 로동 운동을 무마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처방이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 로동 계급의 정의의 투쟁을 멈출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그들의 투쟁은 심화 발전될 것이다.

로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은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에서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부산 일보》 최근 호는 《생활 권익을 위해서나 로동력 보존을 위해 로동자 대우 개선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로동자들의 《쟁의는 합법적》이라고 썼으며 《조선 일보》는 로동 쟁의를 무마, 억압하려는 박 정희 도당의 처사에 대하여 《로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남조선 로동자들의 근본적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여야 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로써 구성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남북의 합작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남조선 로동자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남조선 로동 계급은 오랜 기간 일제와 싸워 이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해방 후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혁명적 기개를 지니고 있다.

남조선 로동자들이 이 고매한 혁명 정신을 간직하고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 애국적 인민들과 굳게 손을 잡고 원쑤를 반대하여 궐기할 때 점령 못 할 요새는 없다.

날로 앙양되고 있는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더욱 더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남조선 로동자들의 애국적 투쟁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 독점 자본

한 금 천

오늘 남조선의 정치 경제 정세는 일본 독점 자본의 재침 책동의 위협 밑에 엄중한 국면에로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일본의 대독점체들과 상사들은 《경제 협력》, 《일 한 친선》의 간판을 들고 자기의 선발대들을 파견하여 남조선에서 침략의 지반을 축성하고 있다.

이미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일본 상사들의 수는 5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 한복판에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선발대들이 활동할 《뉴우 코리어 호텔》이라는 11 층의 건물이 솟아 오르고 있다.

거리들에는 벌써 일본 상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왜색 풍조가 짙어 가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왜색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 이 땅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치욕의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60여 년 전에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자신을 조선 인민의 《보호자》로 자처하고 《협력》, 《개발》의 구호 밑에 조선의 경제 명맥을 틀어 쥐였으며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마침내 조선 인민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시켰으며 아세아의 많은 지역을 침략하였다.

력사와 현실은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이야말로 남조선 인민은 물론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해를 침해하는 화근으로 되며 그것은 또한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현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을 반대 배격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나아가서는 아세아 인민들의 절실한 투쟁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1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조종에 의한 일본 독점 자본 발전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미 제국주의자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자기들의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울 것을 대극동 정책의 중심 과제의 하나로 삼고 일본 독점 자본을 급속히 부활시켰다.

그들은 《점령지 구제 자금》, 《점령지 경제 부흥 원조 자금》을 비롯한 각종 《원조》, 군수 물자 주문, 사자본 투자, 무역, 신용 등의 형태와 방법으로 일본 독점 자본 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1945～1958년 6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이 일본에 준 《원조》액은 35억 4천만 딸라이며 조선에서의 침략 전쟁을 도발한 후 1962년에 이르는 기간에 약 70억 딸라에 달하는 《특수》 자금을 제공하였다.

일본에 대한 미제의 각종 형태와 방법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일본 독점 자본의 막대한 치부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특히 전후 심각한 자금난을 타개하고 생산과 독점을 장성시킬 수 있는 기초로 되였다.

대전 직후에 와서 전전의 약 3 분의 1로 저하되였던 일본의 공업 생산은 급속히 회복되여 1951년에 벌써 전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961년에는 전전의 4 배로 장성하였다. 1961년에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도달하였는데 이것은 전전보다 1% 장성한 것으로 된다.

생산력 발전과 함께 자본의 집중 과정이 촉진되였다. 1961년 법인 기업체 총수 48만 1,377 개 중 537 개의 기업체들이 자본금 총액의 65%, 고정 자본 총액의 59.5%, 상품 매상고의 33%, 리익금의 44.6%를 장악한 사실은 대독점에 의한 경제적 지배의 강화를 반영하는 단적 실례로 된다. 《후지》, 《야스다》, 《스미도모》 등 6 개의 대은행은 1959년에 벌써 은행 자본 총액의 46%, 대부 총액의 43%를 직접 장악하게 되였다.

생산력의 확장, 생산 및 자본의 집중을 통한 독점 자본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 능력과 소비 시장 간의 모순을 산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독점 자본 발전의 전 과정에 걸쳐 자본에 의한 로동 계급의 착취는 생산력 발전 수준에 비한 국내 소비 수준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

1961년 현재 일본 공업 생산은 대전 전의 4 배로 장성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국내 소비는 겨우 50%가 장성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코 일본 독점으로 하여금 협소한 국내 시장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대외 시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지불 능력 있는 수요가 생산 장성에 따라 가지 못함으로써 과잉 상품의 판매난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제국주의 단계에 와서 자본의 거대한 규모에로의 집적 및 집중은 생산과 수요 간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키며 따라서 과잉 상품의 판매, 보다 《안전한》 잉여 가치 착취를 위한 해외 팽창 정책을 유발하게 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의 생산력과 자본의 규모는 자라 개개의 민족 국가의 협소한 테두리를 벗어 났다. 이로부터 타민족의 예속과 원료 산지 및 자본 수출지로서의 식민지의 략탈에 대한 대렬강들의 지향이 생겨 난다.》(전집 제 21 권, 412 페지)

현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팽창 방향은 동북 아세아이며 당면하게는 남조선이 목표로 되고 있다.

일본 독점들은 《일본이 없이는 한국 경제의 앞날도 없다》고 남조선 재침 야망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물론 일본 독점이 침략의 촉수를 남조선에 뻗치려는 것은 지리 상으로 린접되여 있는 유리한 조건을 타산한 일본 자체의 침략적 야망에도 기인되지만 중요하게는 미제의 유인 정책과 결부되고 있다.

최근 미제는 자국이 봉착하고 있는 딸라 위기와 관련하여 남조선에 대한 《원조》의 일부를 일본에 분담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며 일본의 힘을 빌어 뒤흔들리는 남조선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재수습하려 하고 있다.

미 국무성 당국자들이 《아세아에서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놀아야 하며 《한국의 장기적 안정과 경제 리익은 불가피하게 일본과 련결되여 있다》고 떠벌리고 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제의 대외 정책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해외 팽창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아에서 옛지위를 회복해 보려는 일본 독점들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독점 자본은 미제의 《원조》 분담 정책에 편승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길에 들어 섰다.

그가 남조선 침투에서 노리고 있는 목적은 남조선을 침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전 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는 아세아 대륙을 침략함으로써 이미 파산된 지 오랜 저들의 《대동아 공영권》의 옛지위를 회복해 보려는 데 있다.

그것은 아세아에서 《일본 합중국을 만들어야 하며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극동의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한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의 망발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특히 현 시기 일본 독점들이 남조선에 대한 침투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첨예한 대외 시장 문제와 국제 수지 적자의 증대로 인한 일본 자체의 당면한 경제적 난관과 다른 편으로는 박 정희 《정권》의 대일 굴종의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께다 내각은 얼마 전에 《소득 배증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계획은 최근 10년 간에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장성시킬 것을 내용으로 한 허황한 계획인데 그것은 광범한 대외 시장을 뒤'받침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구라파 공동 시장》, 《자유 통상 지대》 등 국제 무역에서의 지역적 쁠럭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의 강화 등 일련의 정세는 서구라파에 대한 일본 상품 판로를 차단하고 있다. 그의 후과는 1962년에 수출 42억 딸라, 수입 58억 딸라로서 일본의 국제 수지 적자가 16억 딸라에 도달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박 정희 도당은 지난 군사 파쑈 통치 2 년 간에 반인민적 정책이 빚어 낸 생산의 파탄, 식량 위기, 물가 폭등, 원자재 부족, 외화 고갈 등 심각한 경제적 후과로 말미암아 초래된 자기의 통치 위기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수습해 보려고 일본에 적극 의거하는 길에 들어 섰다.

박 정희는 《제 2의 리 완용이가 되더라도》, 《역적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일본 독점 자본으로 하여금 남조선 침투를 서두르게 되는 주객관적 조건으로 된다.

일본 독점체들은 최근 시기에 와서 《한국행 빠스를 놓치지 말라》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남조선에 기여 들고 있다.

2

현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는 주로 무역, 《기술 협조》, 《보세 가공 무역》, 차관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은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자국의 잉여 상품을 남조선에 투입하며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경제적 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에서 자본 수출보다 상품과 기술 수출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제국주의 독점은 타국에 대한 경제적 략탈에서 독점적 고률 리윤 획득의 원천으로 되는 원료 자원과 로동력, 기업을 매점하기 위한 자본 수출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

그러나 자본 수출에 대한 독점 자본의 지향은 두 나라 호상간 특히 자본 수출 대상국에 의한 일정한 정치적 보장 및 경제적 안받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적 관계로서의 정치 경제적 조건이 보장되였을 때 한 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자본 수출은 거리낌 없이 진행되며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자본 수출이 제한 억제된다.

오늘 일본과 남조선 호상간에는 일본 독점들의 자본 수출을 제한 억제하는 일련의 정치 경제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0여 년이나 끌어 오던 《한 일 회담》은 아직도 타결되지 못 하여 남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지 못 하고 있으며 《한 일 회담》과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를 반대하는 남조선 및 일본 인민들의 투쟁 기세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독점들의 상품 및 자본 수출이 실제 상 강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독점들이 《량국 정부의 보다 확고한 뒤'받침과 일관성 있는 시책이 베풀어져 투자의 보장은 물론 상거래의 신용 및 안정도가 마련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한 일 국교 정상화》를 급속히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다른 한편 남조선의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 위기, 무역과 어업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 일 간의 경제적 모순, 남조선 경제에 대한 미제의 지배 등은 일본 독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자본 수출을 심히 제한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 독점 자본은 새로운 수법을 고안하게 되였는바 그것이 곧 《경제 협조》의 간판 밑에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려는 무역, 《연불 수출》, 《기술 협조》, 《보세 가공 무역》, 차관 등 자본 수출의 과도적 형태이다.

오늘 일본 독점 자본은 이러한 형태로써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에 대한 침투 정형을 형태 별로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본 독점 자본은 대외 무역을 통하여 상품 수출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시기 일본 독점 자본은 남조선의 심각한 외화난으로 말미암아 지불 능력이 극히 제한되여 남조선에 대한 상품 수출을 충분히 확대할 수 없는 것을 타산하고 《구상 무역》, 《연불 수출》의 방법까지 리용하여 상품 수출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1959년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 상품 수출액은 3천 2백만 딸라로서 남조선 수입 총액의 10.6%에 불과하였으나 1962년에 와서는 그의 3 배로 증대되였다.

무역의 량적 증대와 함께 그의 구조 상에서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그것은 무역에서 점차 설비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하제자와 제철소》, 《도요 면화》, 《도요 레이온》 등 독점체들은 남조선의 괴뢰 정부 또는 개별적인 예속 자본가들을 상대로 하여 수천만 딸라에 해당하는 세멘트, 제빙, 방직 부문의 종합 설비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니홍 정유》, 《고베 제강》, 《도요 면화》 등은 정유, 비료, 세멘트 공장 설비 수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무역 구조 상 변화의 다른 하나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1961년에 남조선의

일본 중화학 공업 제품 수입액은 대일 수입 총액의 76.3%나 되고 있다.

설비 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남조선의 대일 무역에서의 상시적인 채무, 채권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남조선이 일본의 설비 수출 시장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일본 독점 자본의 경제적 침략 책동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 일본 독점 자본은 《보세 가공 무역》, 《기술 협조》의 형태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자본 수출의 지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보세 가공 무역》, 《기술 협조》는 독점들이 자본 수출의 과도적인 단계에서 상품과 자본 수출의 전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흔히 리용하는 침략 수단의 하나이다.

일본 독점 자본은 《보세 가공 무역》, 《기술 협조》의 미명 밑에 자금의 결핍, 기술 조건의 불비로 인하여 운휴 상태에 있는 남조선의 중 소 기업체들에 약간의 자금과 설비들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그것을 저들의 하청 공업으로 전락시켜 값싼 로동력을 착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건설 청부의 담당, 장기 《기술 제휴》, 기술 인원의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한 20여 건의 《기술 협조 계약》이 체결되였으며 1963년 9월 현재로 금액 상 2억 9천여만 딸라에 해당하는 수십 건의 보세 가공 계약 및 가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세째로, 일본 독점 자본은 직접 투자, 차관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한 책동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일본 독점들은 상품과 기술 수출을 강화하면서 차관, 직접 투자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최근 2년 간에 일본 독점들이 차관, 직접 투자의 형태로 남조선에 투하하였거나 투하 교섭 중에 있는 자본을 금액 상으로 환산한다면 5억 딸라 이상이나 된다.

일본의 위체 은행들인 《제 1 은행》, 《동경 은행》 등 수 많은 대은행들은 남조선에 대한 《신용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점》 설치를 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 독점체들은 《대리점 업무 계약》, 《기술자 교환》, 《공동 조사》 등 각종 형식으로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일본 독점들은 자본 수출보다 상품과 기술 수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한 정도로 남조선 경제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 독점 자본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박 정희 도당의 대일 굴종 정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본 수출의 비중을 급격히 증대시키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만일 일본 독점 자본이 자본 수출을 강화한다면 남조선 경제는 더욱더 파탄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은 미 일 제국주의에 2중으로 예속된 식민지 노예로 전락될 것이다.

오늘 남조선은 일본 독점 자본까지 끌어 들여 미 일 침략자들의 2중의 식민지로 전락되느냐, 아니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내부 력량에 의거하여 자생, 자결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지난날의 력사와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외세 의존이 민족의 리익과 나라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망국의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다.

출로는 오직 하나, 그것은 남조선에서 일체의 외세를 몰아 내고 남북 간의 교류와 합작을 통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조선 인민은 미제의 비호, 조종 하에 남조선을 재침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그를 맞아 들이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의 그 어떠한 망국 행위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과거처럼 조선에서 함부로 로략질할 때는 지나 갔으며 오늘의 조선 인민이 60여 년 전의 조선 인민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항일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김 일성 동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불패의 인민이며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세계의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조국을 지켜낸 영웅적 인민이다.

특히 전후 우리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력량이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다. 이제 우리 인민에게는 그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며 그 어떤 원쑤의 침략 책동도 단숨에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이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서 응당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만일 분별 없이 모험적인 침략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구국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 개별적 인사들도 일본 군국주의의 무모한 침략 책동이 일본 인민을 미제의 침략의 희생물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과 일본 인민들에게 국제적 련대성을 표시하며 열렬한 지지 성원을 보낸다.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재침 책동은 조선 인민과 일본 인민의 단합된 력량 앞에 파탄되고야 말 것이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쫓겨 나고야 말 것이다

허 남

동남 아세아는 오늘 세계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폭풍이 가장 세차게 일어 나고 있는 지역의 하나이다. 바로 이 지역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들의 《무서운 십자 포화에 걸려 들어》(워싱톤 데일리 뉴스) 녹아 나고 있고 그들의 침략 정책의 《척추》가 분질러지고 있다.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간의 격렬한 싸움 속에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각성하고 승리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의 식민지 지반은 뿌리 채 뒤흔들리고 있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집요한 침략 정책으로 하여 추적된 《폭발물》 더미 우에서 공포에 떨면서 비명을 울리고 있다. 그들은 헤여 날 수 없는 감탕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동남 아세아는 반제, 반식민주의의 전투장으로 화하고 있다. 이 지역 인민들은 무장 투쟁을 비롯한 각종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광명한 길을 개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도발에 날뛰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함으로써 아세아의 평화 유지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 ✻

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동남 아세아를 침략과 략탈의 중요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여기에 끊임 없이 침략의 마수를 뻗쳐 왔다.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침략의 마수가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뻗치기 시작한 것은 특히 2 차 세계 대전 이후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대외 침략, 세계 제패 계획에서 동남 아세아 지역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미제가 저들의 침략 정책에서 이 지역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동남 아세아는 세계에서 자연 부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고무, 주석, 석유를 비롯한 각종 전략 자원이 풍부하며 제국주의 독점체들에 막대한 초과 리윤을 가져다 주는 광대한 시장이 있다.

동남 아세아는 미제의 전략적 견지에서 볼 때도 사회주의 진영, 특히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봉쇄》하며 그들을 반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 지대를 이루고 있다.

미제는 2 차 대전 후 우리 나라, 중국, 월남 등 사회주의 나라들이 출현한 시초부터 이 나라들을 반대하기 위한 침략적 지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그들의 이러한 정책은 특히 아세아 사회주의 나라들의 위력이 미증유로 강화되고 이 나라들이 아세아에서의 강유력한 평화의 성새로 등장함에 따라, 그리고 동남 아세아를 비롯한 아세아 지역 인민들에 대한 그들의 고무적 영향

력이 증대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자기의 식민지적 리권을 확대하고 세력권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전 과정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영국, 불란서, 화란 등 구 식민주의자들의 지위가 약화된 절호의 기회를 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자기의 경제력에 의거하여 이 지역에 전면적으로 침투하였다.

미제는 대전 전에 영국의 예속 하에 있었던 타이를 탈취하고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남부 월남을 강점하였으며 점차 인도에서 영국을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동남 아세아 전 지역에 마수를 뻗치였다.

이리 하여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세력의 중심으로 되였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교살하는 흉악한 헌병으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첫째 가는 원쑤로 등장하였다.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은 특히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급격히 고조되고 혁명과 반혁명, 진보와 반동 간의 투쟁이 전례없이 치렬해지고 혁명 력량의 진출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더 발광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미제는 이 지역이 완전히 혁명화되며 제국주의자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사회주의 력량에 종국적으로 합세하게 될 사태를 무엇보다 겁 내고 있는 것이다.

사태 발전은 미제의 온갖 발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갈수록 혁명 력량이 급속히 장성하고 있으며 미제와 모든 반동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 지배층의 대변자들이 동남 아세아에서 《1970년까지도 현재의 정세가 지속된다면 이는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우리가 직면한 어떤 위기보다도 더 위험한 정세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를 자기의 세력권 내에 장악함으로써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봉쇄》하며 그의 고무적 영향력을 막으려는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동남 아세아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위기에 처한 자기들의 식민지 지반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인민들이 각성되고 민족 해방 투쟁이 급속히 앙양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야수적인 무력 탄압과 함께 각종 교활한 신 식민주의 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실로 오늘의 동남 아세아는 미제의 각종 형태의 신 식민주의의 진렬장으로, 시험장으로 되고 있다.

마 제국주의자들은 우선 이 지역에 자기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침략적인 군사 쁠럭을 더욱 강화하며 로골적인 무력 간섭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쎄아토》를 조작하고 그 참가국들의 령토에 수 많은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있으며 극동과 동남 아세아 지역에 21만 5,000 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미제는 《말레이시아 련방》을 《쎄아토》와 직접 련결시키며 남조선, 일본, 오끼나와, 대만, 비률빈, 인도지나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르는 《초생'달》 형의 군사 쁠럭 체계를 형성함으

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위》하려는 침략 계획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들은 침략적인 군사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직접적인 무력 간섭과 침략 전쟁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남부 월남 인민을 반대하는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더욱 확대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죤슨이 자기의 첫 훈령에서 《미국의 온갖 노력을 베트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원조》하는 데 돌려야겠다고 한 사실은 미제가 남부 월남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미제는 남부 월남 인민을 반대하여 2만 5,000여 명의 군대와 700 대의 비행기, 전투함과 항공 모함을 포함한 20 척의 함선들, 500 척의 발동선, 땅크, 각종 군용차, 수천 대의 장갑차, 각종 포를 비롯하여 현대적 살인 무기들을 끌어 들였으며 수천 개소의 《전략촌》을 설치하여 수백만의 주민들을 억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사용하여 인민들을 대량 살륙하고 있다.

미제는 또한 라오스에서 괴뢰들과 반동 분자들을 사촉하여 라오스 애국 력량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빈번히 감행하게 함으로써 또다시 내란을 도발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적 방법에 의거하는 동시에 각종 정치 경제적 압력을 가하며 특히 《원조》를 통하여 동남 아세아 나라들을 자기의 지배 하에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미제가 《원조》를 통하여 동남 아세아 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이 발표한 축소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45년부터 1962년 6월까지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원조》 총액은 근 150억 딸라에 달한다.

특히 최근 년간에 와서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침투는 급속히 강화되였는바 1962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외 《원조》 총액 50억 딸라 중에서 인도에 8억 3천 800만 딸라, 파키스탄에 4억 3천 900만 딸라, 남부 월남에 2억 4천 600만 딸라를 준 것을 비롯하여 동남 아세아 및 극동 제 국에 제공한 《원조》액은 그 총액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 《원조》는 민족 경제를 여지 없이 몰락시키고 이 나라들을 미국의 완전한 상품 시장으로, 원료 공급지로 전락시켰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그 나라 내정에 란폭하게 간섭하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완전히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미국 《원조》의 희생물의 대표적 실례의 하나이다.

미제는 인도를 상실한다면 《세계의 세력 균형이 엄중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떠들면서 동남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 수행에서 인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도의 반동 통치 집단을 매수하기 위하여 막대한 딸라를 던져 주고 있다.

인도가 독립한 이래 1961년까지 미국과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원조》와 차관은 63억 6천만 딸라에 달한다.

이러한 《원조》의 간판을 들고 인도에 침투한 미국 독점 자본은 인도 경제의 중요 명맥을 장악하였으며 국가 예산까지 통제하게 되였다.

결과 인도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였으며 미제의 《반중국 깜빠니야》의 돌격대로 전락되였다.

인도 뿐만 아니라 타이, 비률빈, 남부 월남 등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의 통제를 거부하고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려는 동남 아세아 중립 국가들에 대하여 표면상으로는 《중립의 존중》이니, 《친선과 협조》니 하면서 배후에서는 파괴 활동을 감행하여 그 나라 정부를 전복하고 그를 괴뢰 정부로 교체하기 위한 교활한 침략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1962년 초에 쎄일론의 자유당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 조작, 비르마, 인도네시아에서의 빈번한 파괴 책동 등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배후 책동에 의한 것이였다.

특히 최근 미제는 《자유 크메루 운동》 조직을 통하여 수다한 파괴 분자들을 캄보쟈 내부에 잠입시켜 정부 전복 활동을 감행케 하고 있으며, 타이와 남부 월남 괴뢰들을 사촉하여 국경 도발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캄보쟈 정부를 내외로부터 공격하고 있다.

캄보쟈에 대한 미제의 이러한 침략 정책에 대하여 캄보쟈 정부가 《미국의 관변 측이 일방으로는 캄보쟈의 주권과 정책을 존중한다고 공포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캄보쟈의 평화와 자유에 창끝을 돌리고 있는 음모에 공공연히 가담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또한 미제는 자기들이 조작한 괴뢰 정권까지도 저들의 침략 정책 수행에서 불리할 때에는 그를 서슴없이 전복한다.

최근 남부 월남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는 바로 그 일례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동남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조수로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면서 일본 독점 자본의 동남 아세아 진출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

일본 독점 세력은 미제를 등에 업고 동남 아세아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일본 수상 이께다는 동남 아세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진출을 주장하면서 《이 길만이 일본의 생존의 길》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게 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미제가 동남 아세아에서 스스로 물러 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침략의 지반이 약화되면 될수록 그를 수습하고 멸망에 직면한 자기의 운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더욱더 집요하고 악랄하게 발악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오늘 동남 아세아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 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 세력들은 완전히 고립되여 있으며 인민들의 단호한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체계는 총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에는 장기간의 반제 투쟁에서 각성되고 단련된 혁명의 주체적 력량이 준비되여 있다.

이 지역에는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무장 부대들이 활동하고 있다.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청년, 학생, 지식인 등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하고 있으며 투쟁의 선두에는 혁명의 불'길 속에서 세련되고 장성 강화된 맑스-레닌주의당들이 서 있다.

동남 아세아 제 국의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현대 수정주의를 배격하고 반제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고 있으며 모든 인민 대중과 일체 진보적 력량을 민족 해방 투쟁의 종국적 승리에로 인도

하고 있다.

식민지 제도의 붕괴와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의 결과 제국주의자들은 독립한 동남 아세아 제 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의 가능성을 상실하였고 그들의 적지 않은 경제적 리권도 탈취 당하였으며 식민주의자들과 결탁하였던 토착 봉건 세력과 매판 자본가들의 세력도 현저히 약화되였다.

동남 아세아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지위의 약화는 이 지역에서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에 의하여 더욱 촉진되고 있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침입으로부터 자기의 식민지 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리용하고 있으며 불란서 제국주의는 《동남 아세아의 중립화》안을 내놓음으로써 미제에 의하여 탈취 당한 자기의 옛 식민지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제의 세력을 몰아 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세계의 평화 애호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특히 동남 아세아 제 국은 우리 나라, 중국, 월남 등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과 린접하여 있다. 아세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거대한 고무적 힘을 받고 있다.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의 존재와 그의 위력의 강화는 동남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파탄시키고 이 지역 나라들의 독립을 담보하는 믿음직한 정세로 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동남 아세아에 혁명을 낳는 모순들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으며 혁명 력량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미제의 침략 전선에서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며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에 거연히 일떠서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미제의 무력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급속히 앙양되고 있으며 미제의 《원조》와 경제적 예속 정책을 배격하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려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신생 력량들의 공동 투쟁 전선이 날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동남 아세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민족 해방 투쟁은 례외 없이 그의 주공 방향이 미제에 돌려지고 있으며 인민들의 반미 기세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이 총칼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침략 전쟁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손에 무장을 잡지 않을 수 없다.

무장한 적들에 대하여서는 오직 무장 투쟁으로써만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오늘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무장 투쟁은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영웅적 남부 월남 인민은 미제와 그의 주구들을 반대하여 용감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의 전과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남부 월남 인민 해방군은 이미 남부 월남의 국토의 4 분의 3과 인구의 절반 이상을 해방하였으며 지난 3 년 간에만도 1,500 명의 미국 침략자를 포함한 25 만 2,000여 명의 적을 소탕하였고 865 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 또는 격상시킨 것을 비롯해서 수 많은 전투 기재들을 로획, 파괴하였다.

특히 지적하여야 할 것은 미제 침략자들이 요란스럽게 떠들던 《전략촌》 정책을 파탄시킴으로써 인민 해방군을 18 개월 동안에 《전멸》시킨다던 소위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다.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기본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략촌》 정책과 《공수 작전》 전략은 파탄되였으며 현재 전투의 주도권은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다.

처음에 낫과 창을 유일한 무기로 하여 투쟁에 궐기한 남부 월남 인민은 오늘 미제 침략자들의 그 어떠한 공격도 능히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였다.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 무장 투쟁과 그의 승리는 오직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그 어떠한 강대한 적이라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동남 아세아 인민들에게 커다란 모범으로 되고 있다.

라오스 인민은 라오스 애국당의 령도 밑에 미제와 노사방 도당의 빈번한 도발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해방 지구를 철옹성 같이 수호하고 있으며 반제 민족 해방의 혁명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라오스 인민의 진정한 무장력인 라오스 애국 군대는 적들과의 가렬한 무장 투쟁 속에서 단련되였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적 대오로 장성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련방》과 미 제 7 함대의 위협적인 도발 책동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북부 칼리만탄 및 기타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도 고조되고 있다.

무장 투쟁은 말라이, 비르마, 비률빈 등에서도 계속 전개되고 있다.

오늘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무장 투쟁으로써 미제의 침략 계획을 파탄시키고 있으며 그들을 수습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몰아 넣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의 모든 과정은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하여 주고 있다. 《그 민족들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놀랄 만한 기술과 군사 기술을 투쟁에 리용하는 구라파의 압박자들의 위력이 아무리 불패의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피압박 민족들이 수행하는 혁명 전쟁은, 그것이 수백만 근로자들과 피착취자들을 실지로 각성만 시킨다면, 동방 각 민족의 해방을 현재 실지로 완전히 실현시킬 그러한 가능성과 기적을 내포하고 있》(전집 제 30 권, 172 페지)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 세력을 몰아 내기 위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미제의 경제적 침투와 《원조》를 배격하고 그의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며 정치적 독립의 공고화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창설을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고 있다.

캄보쟈 정부는 미제의 《원조》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를 단호히 배격하고 있으며 자국 인민들에게 자력 갱생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비르마 정부는 외국인 소유의 기업소와 회사들을 몰수하고 외국인의 새로운 기업소 창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쎄일론 정부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반대하고 미국의 석유 회사를 국유화하였다.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는 외국의 《원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력 갱생한 나라들의 모범을 따라서 《…쎄일론도 자력으로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경제에서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며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의거하여서는 나라의 민족 경제를 성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또한 경제에서의 자립이 없이는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오늘 동남 아세아의 중립 국가들 속에서 미제의 《원조》와 외세를 배격하며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것은 사태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정치적 독립의 공고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결과 호상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부단히 공고화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 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신생 력량들의 단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수도 쟈카르타에서 진행된 《가네포》 경기 대회와 아.아 기자 회의, 아.아 로조 회의 그리고 제 2 차 아.아 수뇌자 회의 소집을 위한 투쟁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에 대한 지향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

전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고 있는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세찬 기세로 발전하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미제의 침략 계획은 더욱 파탄되고 있으며 미제 침략자들은 완전히 궁지에 빠지고 있다.

오늘 미국 지배층까지도 《동남 아세아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는 남부 월남에서의 침략 전쟁은 그 전도가 암담하며 네루 집단을 비롯한 미제의 괴뢰 도당들은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수립한 미제의 《반공》 군사 체계는 붕괴되여 가고 있다.

사실 상 그들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남 아세아는 미국의 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

동남 아세아 인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은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 청산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제는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한 동남 아세아 인민들에 의하여 이 지역에서 쫓겨 나고야 말 것이며 민족적 독립과 자주를 위한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투쟁은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문답학습

굴진과 채굴 간의 력량 비률을 왜 5 대 5로 하여야 하는가

당은 오늘 굴진과 채굴에서 로력 배치와 자재, 설비, 자금의 투자 비률을 5 대 5로 보장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방침은 우리 나라 채취 공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가장 정확한 조치이며 채취 공업에서 갱 건설과 굴진을 채굴에 선행시킬 데 대한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탄과 광석은 지상에 산적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석탄과 광석을 캐 내자면 우선 그것이 매장되여 있는 땅을 파고 들어 가야 한다. 즉 채취 공업에서 굴진을 진행하는 행정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것이 선행됨이 없이는 도대체 석탄이나 광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채취 공업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자면 더욱더 깊은 땅 속으로 파고 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석탄이나 광석을 캐 내여 쓰면 쓸수록 그 매장량은 감소되게 마련이며 특히는 지표 면에 가까운 부분들의 매장량이 먼저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리 하여 일반적으로 채취 공업에서는 심부 채굴이 점차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막장이 깊어지며 수직갱 및 사갱 건설을 긴절한 문제로 제기한다.

심부 채굴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나라 지하 부원의 분포 상태로 볼 때에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하 부원은 심부에 들어 갈수록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기로 특징 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오늘 우리 나라의 많은 탄광, 광산들에서 수직갱 및 사갱 건설을 촉진하며 그의 굴하 속도를 월 평균 50 메터 이상 보장할 데 대하여 그처럼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는 석탄과 광석에 대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비 채탄장과 채광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부 채굴 대상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충분한 예비 채탄장 및 채광장의 확보는 수직갱 및 사갱 건설의 촉진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 갱도들을 잘 꾸려야 한다.

생산량의 급격한 증대는 운반 계통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는바 이것은 기본 갱도를 잘 꾸린 데 기초하여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부 채굴 대상이 증대되는 조건 하에서 석탄과 광석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본 갱도를 잘 꾸리고 굴진을 선행시키며 특히 수직갱 및 사갱 건설을 촉진시키자면 굴진 부문에 더 많은 로력을 배치하고 자재,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매개 기업소의 생산 성과는 우선 얼마나 많은 석탄 또는 광석들을 캐 내였는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그러니 만큼 굴진과 채굴에서의 력량 비률 관계는 반드시 매개 탄광, 광산들에 주어지는 력량을 가지고 굴진과 채굴의 량 부문에서 어느 한 측면에서도 공간이 없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기본 굴진에서는 3 년 분, 생산 준비 굴진에서는 6 개월 분, 로천 탄광, 광산들에서는 박토를 6 개월 분 이상 선행시킬 수 있도록 력량 비률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생산의 정상화와 그의 부단한 증대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채취 공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현실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우리 당의 조치가 곧 굴진과 채굴 간의 력량 비률을 5 대 5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당이 제시한 이와 같은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는 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그것은 우선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를 계속 높이며 금후 채취 공업 발전의 전망을 개척하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는 데 있다.

당이 제시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한다면 굴진 력량이 건전한 청장년들과 유능한 기술자들로 튼튼히 꾸려지고 굴진 부문에서 설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 리용되며 자재들이 여기에 제때에 보장될 것이므로 채굴과 굴진이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 하에서도 굴진을 항상 선행시킬 수 있게 된다.

굴진의 선행은 결국 확보 탄량과 확보 광량을 증대시키며 그의 예비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생산 장성의 기타 모든 요인들이 작용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 제고되고 채탄, 채광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조건 하에서도 채탄 및 채광장의 부족으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되며 따라서 생산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

확보 탄량과 확보 광량의 증대는 또한 채취 공업의 발전 전망을 열어 준다.

왜냐 하면 탄광, 광산들은 그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석탄과 광석들을 생산할 수 있겠는가에 따라 유망하고 유망하지 못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실은 채취 공업 부문 일'군들이 당의 요구대로 갱 건설과 굴진을 생산 조직 사업의 첫 자리에 놓고 이에 력량을 집중한다면 더 많은 석탄 및 광석을 확보하고 생산을 계속 장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성천 광산에서는 지난해 4.4 분기부터 굴진 부문에 절반 이상의 로력을 배치하고 전체 막장 설비의 53%를 돌리도록 하였다. 특히 자재 공급의 민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 굴진과 채광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공급하던 현상을 퇴치하고 굴진 부문에 전체 자재 공급량의 60% 이상을 배정하는 동시에 굴진 막장에 자재 공급원을 배치하고 현장에까지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리 하여 이 광산에서 설비비, 자재비, 로임을 포함한 자금 투자 비률은 굴진 부문이 55% 이상을 차지하게 되였다.

굴진 부문에 력량을 집중한 결과 이 광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진 속도는 근 2 배로 장성하게 되였으며 굴진이 결정적으로 선행됨으로써 지난해 4.4 분기부터 생산이 정상화되여 4.4 분기 광물 생산량은 3.4 분기에 비하여 월평균 163%로 장성되였으며 계획 과제를 훨씬 초과 수행하게 되였다.

성천 광산 뿐만 아니라 덕현 광산의 경험도 교훈적이다.

이 광산에서는 로력과 설비 배치 및 자재 공급에서 5 대 5로 보장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굴진 막장에 파견하고 굴진 작업반 자체 성원들로써 능히 배관, 뽐프, 권양기 이설, 기계 설비들의 수리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굴진 력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작업반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설비, 자재들을 굴진 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도 일'군들이 직접 갱 막장에 내려 가 굴진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고무 격려하여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걸리는 문제들은 제때 제때에 풀어 나갔다.

굴진 력량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 이 광산에서는 이미 1963년 말까지 3 년 동안 캘 수 있는 광량을 확보하고 6 개월 분 이상의 준비 굴진을 선행할 수 있게 되였으며 금년 1월 20일까지에만도 기본 굴진은 135%, 채굴 준비 굴진은 127%로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굴진이 선행된 결과 이 광산은 지난해에 생산을 정상화하고 년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비하여 훨씬 증가된 금년도 계획 과제도 매일 지표 별로 초과 수행하고 있다.

당이 제시한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는 의의는 또한 채취 공업 부문에서 기술 혁신의 전제를 조성한다는 데 있다.

왜냐 하면 갱내 작업의 기계화, 선진적인 채굴 방법의 도입, 설비 리용률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등을 위한 제반 문제가 오직 갱 건설과 굴진이 선행된 조건 하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반 계통에서의 기술 혁신은 채취 공업에서 생산 증대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운반 계통을 단일화하고 운반 작업과 적재 적하 작업을 기계화하며 자동화하고 그를 점차 대규모화하는 문제는 우선 기본 갱도, 수직갱을 잘 꾸린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굴진 및 채굴에서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도입하고 착암기 대당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있어서도 굴진을 선행하고 기본 갱도와 수직갱을 잘 건설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원 탄광의 경험은 이것을 잘 말해 준다.

고원 탄광에서는 기본 갱도를 잘 꾸리고 압축기를 막장의 300~400 메터 구간 내에 이설함으로써 압축 공기의 기압을 3 기압으로부터 5 기압 이상으로 제고하여 굴진공들로 하여금 더 많은 착암기를 돌리면서 선진적인 작업 방법

을 도입하고 작업 능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이 기업소가 굴진 계획은 물론 생산 계획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이와 같이 생산에서 기계화를 도입하며 선진적인 작업 방법을 도입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등 기술 혁신의 모든 문제들이 갱을 잘 건설하고 굴진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굴진과 채굴에서 5 대 5의 력량 비률을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당의 방침을 매개 탄광, 광산들의 구체적 실정에 결부시켜 정확히 관철한다면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를 부단히 높임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힘 있게 촉진할 것이며 또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갱도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그의 수명을 연장케 함으로써 생산물의 원가를 낮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경제적 유리성을 전망적 견지에서 옳게 타산하지 못하고 눈 앞에 부닥친 생산 과제 수행에만 치중하여 굴진을 선행하지 못 함으로써 충분한 예비 채탄장 또는 채광장이 없어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갱도를 잘 꾸리지 못 하여 운반 체계에 혼란을 조성하게 된다면 생산에서의 파동성이 불가피하게 일어 날 것이며 따라서 총적 생산량을 결코 증가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탄광, 광산들에서는 굴진 부문에 우수한 일'군들을 배치하며 자재와 설비를 선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굴진과 채굴 간의 력량 비률을 5 대 5로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편 광 성

근로자 제 4 호 (루계 242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 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2월 17일 발 행 • 1964년 2월 20일

ㄱ—430110 값 40 전